

2017 수능날!
국어 1등급을 향한 완벽한
기출훈련법

후려도감 비문학

김기덕(랍비) · 나태영 | 지음

1
문제풀기

2
지문분석

3
문제분석



[훈련도감 비문학]과 함께하는 국어 만점 공부법!

[훈련도감 비문학]을 통해서 비문학 훈련을 하기 위해 이 책을 만나게 된 ‘진짜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이나 수험생들이 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하고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 때,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하며 생각의 훈련을 할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제대로 된 기출 훈련을 할 수 있고, 그 훈련을 통해서 지문분석, 문제풀이에 대한 정답을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부는, 특히 기출은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책이 알려 주는 3단계 훈련 가이드를 읽어 본 후에 그 방법에 따라 ACT1부터 ACT20까지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기출 훈련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훈련도감 비문학]을 통해서 1회독만 제대로 하면 2~3회독을 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으로 1번만 제대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앞쪽에 20일과 40일에 끝내는 두 가지 Plan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되, 특정 영역이 약한 경우라면 그 영역만 골라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왜 기출을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갑시다.

Why 1 기출 분석은 왜 필요한가?

→ 수많은 수능 국어 문제들 중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그래요, 바로 수능 문제예요. 그다음은 6, 9월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가 가장 좋은 이유는 두 달에 걸쳐 교수님이 지문과 문제 출제하고, 실력과 선생님들이 검토하여 수십 번의 수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역시 실력과 선생님들이 모여 한 달 가까이 합숙하면서 문제를 출제하고 수십 번의 검토와 수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문제 출제와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문과 문제의 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한마디로 문제들 중 ‘명품’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험이나, 시중에 출간되는 교재의 문제들은 모두 이 수능 시험 문제 및 6,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즉 ‘기출문제’를 모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은 명품이자, 모든 국어 문제들의 모델이 되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는 말이 있지요? 수능 공부를 하려면 수능 국어가 어떤 지문과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해요. 어떤 문제로? 바로 명품이자 모델인 기출문제로요.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것은 수능 국어 시험 대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인 거예요.** 기출문제로 수능 국어 문제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능 날 아침 국어 시험을 볼 때 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Why 2 왜 기출 ‘훈련’인가?

→ 이 책의 이름에 괜히 ‘훈련’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훈련’이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의 훈련’을 말해요. 수능을 준비하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하지만, 정작 그 기출문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기출문제를 풀기만 해도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출문제는 단순히 풀기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꾸준한 연습을 통해 자신의 생각의 방식으로 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은 수능 국어영역에 어떻게 접근하면 된다고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과 방법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동시에, ACT1에서 ACT20까지의 ‘훈련’을 통해 1등급 문제 풀이의 비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단계 훈련에 대한 본격적인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도감 비문학]을 100% 씹어먹는 10대 원칙

01 “배운 대로 비문학 지문독해 훈련을 한다.”

→ 무작정 읽지 말고, 무작정 풀지 말고, 제발 ‘배운 대로’ 훈련을 하도록 합니다. 기출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은, 기출문제집으로 코를 풀고 휴지통에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02 “남에게 설명이 가능할 정도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답을 고른다.”

→ ‘대충 A 같아서 정답은 ㉓번인 것 같아!’ 같은 생각으로 문제를 풀지 마세요. 동네 초등학생 꼬마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적인 근거를 찾아서 푸세요.

03 “해설지는 최후의 보루이다. 중간에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만 체크하고 제일 마지막에 해설지를 활용한다.”

→ 해설지를 보는 것은 가장 나중입니다. 해설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해설지는 여러분의 해설과 비교할 때 쓰는 것입니다.

04 “틀린 문제가 있다면 초등학생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대체 왜 이 근거가 틀렸는지 충분히 생각해 본다”

→ 여러분이 고른 답이 비록 ‘오답’일지라도, 그 오답을 고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근거가 왜 틀렸는지 직접 검토해 보고, 반박도 해 보면서 내 사고나 잘못된 습관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05 “맞힌 문제의 해설과 본인의 근거를 비교하면서, 해설지와 내 생각이 다른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다.” & “틀린 문제도 동일하게 한다.”

→ 자, 이제 해설지를 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틀린 문제뿐만 아니라, 맞힌 문제 역시 근거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정답을 맞혔다고 해서 반드시 해설까지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틀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해설을 해설지와 비교해 보고 다른 부분이 있나 확인해 봅니다.

06 “해설지가 납득이 안 가거나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 혹은 누구한테든 질문해서 본인이 생각한 근거에 논리적인 허점은 없는지 피드백을 받아 본다.”

→ 해설지가 납득이 안 가거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해설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 쌤들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근거에 혹시나 논리적인 허점이 있거나 해설지의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피드백이 이루어진 기출문제는 완벽하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랍비 쌤 카톡 아이디 : Rabbi 나태영 쌤 카톡 아이디 : gnalgongbu)

07 “전반적인 문제 구성과 지문을 다시 한 번 훑어보면서, 출제자가 문제를 어떻게 출제했는지 곰씹어 본다.” & “예전에 풀었던 지문들과의 유사성을 생각해 본다”

→ 해설지를 보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훈련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출제자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했는지, 어떤 문장을 정답인 선지로 출제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8 “어려웠던 부분이나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왜 어려웠는지, 그렇다면 그 불편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고민해 본다.”

→ 문제를 풀 때 분명 어려웠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까 그 타이밍에 왜 막혔는지, 어떤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던 건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09 “잘 이해가 안 되었던 지문은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히 생각해 본다.”

→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해설지의 내용독해 부분이랑 비교하면서 꼭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해 보세요.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은 단기간 내에 느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빛을 보게 됩니다.

10 “결국 ‘비문학 훈련’이라는 것은 나 혼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그 과정을 즐겨라. 즐길 수 없다면 견뎌라.”

Contents

Act 1	A [인문]	2015 9월 평가원모의 B형	12
	B [사회]	2014 6월 평가원모의 A형	14
	C [과학]	2015 9월 평가원모의 A형	16
	D [기술]	2015 수능 A형	18
	E [예술]	2015 9월 평가원모의 A형	20
Act 2	A [인문]	2015 6월 평가원모의 A형	22
	B [사회]	2015 9월 평가원모의 B형	24
	C [과학]	2015 9월 평가원모의 B형	26
	D [기술]	2015 9월 평가원모의 A형	28
	E [예술]	2014 9월 평가원모의 A형	30
Act 3	A [인문]	2014 수능 A형	32
	B [사회]	2015 수능 A형	34
	C [과학]	2014 6월 평가원모의 A형	36
	D [기술]	2016 6월 평가원모의 A형	38
	E [예술]	2014 9월 평가원모의 B형	40
Act 4	A [인문]	2012 9월 평가원모의	42
	B [사회]	2015 6월 평가원모의 B형	44
	C [과학]	2016 6월 평가원모의 A형	46
	D [기술]	2013 9월 평가원모의	48
	E [예술]	2014 6월 평가원모의 B형	50
Act 5	A [인문]	2014 9월 평가원모의 A형	52
	B [사회]	2014 수능 공통	54
	C [과학]	2014 수능 A형	56
	D [기술]	2015 6월 평가원모의 A형	58
	E [예술]	2013 수능	60
Act 6	A [인문]	2011 수능	62
	B [사회]	2015 6월 평가원모의 A형	64
	C [과학]	2012 수능	66
	D [기술]	2012 9월 평가원모의	68
	E [예술]	2012 9월 평가원모의	70
Act 7	A [인문]	2011 9월 평가원모의	72
	B [사회]	2012 6월 평가원모의	74
	C [과학]	2016 9월 평가원모의 A형	76
	D [기술]	2012 6월 평가원모의	78
	E [예술]	2012 6월 평가원모의	80
Act 8	A [인문]	2013 9월 평가원모의	82
	B [사회]	2014 6월 평가원모의 B형	84
	C [과학]	2011 수능	86
	D [기술]	2011 수능	88
	E [예술]	2013 9월 평가원모의	90
Act 9	A [인문]	2014 수능 B형	92
	B [사회]	2013 수능	94
	C [과학]	2013 수능	96
	D [기술]	2012 수능	98
	E [예술]	2013 6월 평가원모의	100
Act 10	A [인문]	2013 6월 평가원모의	102
	B [사회]	2016 6월 평가원모의 공통	104
	C [과학]	2014 6월 평가원모의 B형	106
	D [기술]	2011 6월 평가원모의	108
	E [예술]	2014 수능 B형	110

Act 11	A [인문]	2014 6월 평가원모의 B형	112
	B [사회]	2016 6월 평가원모의 공통	114
	C [과학]	2014 9월 평가원모의 A형	116
	D [기술]	2013 6월 평가원모의	118
	E [예술]	2010 수능	120
Act 12	A [인문]	2016 6월 평가원모의 B형	122
	B [사회]	2016 9월 평가원모의 B형	124
	C [과학]	2016 6월 평가원모의 B형	126
	D [기술]	2011 9월 평가원모의	128
	E [예술]	2011 6월 평가원모의	130
Act 13	A [인문]	2016 9월 평가원모의 B형	132
	B [사회]	2016 9월 평가원모의 A형	134
	C [과학]	2015 수능 A형	136
	D [기술]	2013 수능	138
	E [예술]	2015 6월 평가원모의 공통	140
Act 14	A [인문]	2015 수능 B형	142
	B [사회]	2011 9월 평가원모의	144
	C [과학]	2015 수능 B형	146
	D [기술]	2015 6월 평가원모의 A형	148
	E [예술]	2011 수능	150
Act 15	A [인문]	2014 9월 평가원모의 B형	152
	B [사회]	2016 수능 B형	154
	C [과학]	2015 6월 평가원모의 B형	156
	D [기술]	2014 6월 평가원모의 A형	158
	E [예술]	2015 수능 B형	160
Act 16	A [인문]	2015 6월 평가원모의 B형	162
	B [사회]	2015 9월 평가원모의 A형	164
	C [과학]	2014 9월 평가원모의 B형	166
	D [기술]	2014 5월 예비시행 A형	168
	E [예술]	2016 9월 평가원모의 공통	170
Act 17	A [인문]	2012 수능	172
	B [사회]	2014 9월 평가원모의 공통	174
	C [과학]	2014 수능 B형	176
	D [기술]	2016 9월 평가원모의 A형	178
	E [예술]	2011 9월 평가원모의	180
Act 18	A [인문]	2016 6월 평가원모의 A형	182
	B [사회]	2014 6월 평가원모의 A형	184
	C [과학]	2016 9월 평가원모의 B형	186
	D [기술]	2016 수능 A형	188
	E [예술]	2010 9월 평가원모의	190
Act 19	A [인문]	2016 수능 A형	192
	B [사회]	2011 수능	194
	C [과학]	2016 수능 A형	196
	D [기술]	2014 수능 A형	198
	E [예술]	2012 수능	200
Act 20	A [인문]	2016 수능 B형	202
	B [사회]	2016 수능 공통	204
	C [과학]	2016 수능 B형	206
	D [기술]	2014 9월 평가원모의 A형	208
	E [예술]	2014 수능 A형	210

제재	과학	출처	2014 9월 평가원모의 B형	난이도	상	목표시간	5분
지문독해 방식	특정 현상에 숨어 있는 원리를 밝히는 과학 지문을 읽을 때에는 내용 이해의 기초가 되는 기본 용어 및 개념에 대해 충실하게 이해해야 해요. 이 지문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독해해야 하는데, 앞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문단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개념을 독해 기초로 체크해 가면서 읽고 이해하고 문제를 푸세요.						

08~09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❶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mv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 ❷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 ❸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훌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 ❹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팔을 뻗을 때보다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팔을 붙였을 때가 뻗을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양팔을 한껏 펼쳐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Self 지문분석

★ 2단계 훈련 ★ 스스로 지문을 분석·요약해서 독해력을 키운다!

- ❶ ❶문단 :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이라 하고,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이라고 함
- ❷ ❷문단 : 물체를 이루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라 하는데, 이들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물체 전체의 ()에 해당하며, 물체의 각운동량은 ()×()으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고, ()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함
- ❸ ❸문단 :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으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 커짐
- ❹ ❹문단 : 피겨 선수가 공중 회전을 할 때에는 팔을 몸에 붙여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져서 회전 관성이 ()들지만 각속도는 ()지는 반면, 착지 직전에는 팔을 펼쳐 ()이 커지고 ()가 작아지게 함
- ❺ 전체주제 : []

| 지문 구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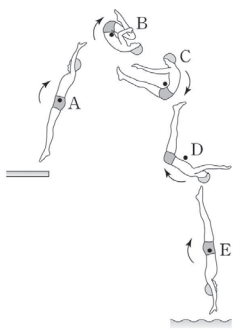
❶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개념	↓
❷ 각운동량의 개념과 표현 방법	↓
❸ 질량 요소와 회전 관성의 관계	↓
❹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된 사례 : 피겨 선수	

08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 ② 회전하는 팽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 ③ 지면과의 마찰은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들게 한다.
-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한,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 ⑤ 회전하는 하나의 시곗바늘 위의 두 점 중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각속도가 작다.

- **문제풀이법**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로, 먼저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고 이를 판단할 근거를 지문에서 확인한 다음, 그 적절성을 판단해 가며 푸세요.
- ③ 회전 관성이 작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④ 비교 대상의 차이점은?
- ⑤ 비교 대상이 두 시곗바늘? 한 시곗바늘?

0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 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 ①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다이빙 선수는 1.5 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 **문제풀이법**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본 뒤,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하고 그 적절성을 판단해가며 푸세요.
- ① 각운동량은 달라지는 건가요?
- ⑤ 회전수와 각속도의 관계는?



Self 문제분석

★ 3단계 훈련 ★ 틀린, 헷갈린 문제는 정답의 근거를 찾아 다시 풀고, 문제분석을 한다!

정답/문제분석 1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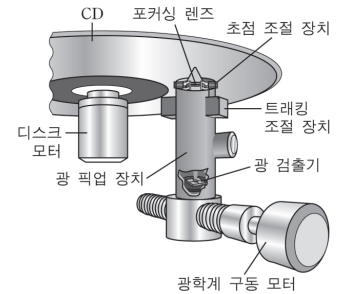
문제풀 날	[]월 []일	지문분석 / 훈련평가	[]월 []일	목표시간 체크	[○ / ×]	점수 체크	[] / 5점
정오답 체크	08 (○ / × / △) 09 (○ / × / △)						
문제분석 훈련지침	1 틀린 문제는 ×, 감으로 맞힌 문제는 △ 표시하세요. 그리고 문제 오른쪽 '문제풀이법'을 보고 정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아가며 다시 푸세요. 이때는 자신의 생각과 문제풀이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 완벽하게 문제를 맞혔더라도 오답 선택지 중에 애매한 것이 없었는지 점검하세요. 2 그래도 또 틀렸다면 {문제분석식 해설}의 내용과 자신이 문제를 풀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세요. 맞힌 문제라도 문제 유형에 따른 단계별 문제풀이법, 정답의 근거 찾기, 오답 선택지 분석까지 모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문제분석을 해야만 국어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제재	기술	출처	2014 수능 A형	난이도	상	목표시간	7분
지문독해 방식	컴퓨터에 대부분 달려 있는 CD 드라이브의 원리와 구조를 설명하는 지문이에요. 지문에 제시된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해해야 하고, 여러 장치들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각 장치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내용을 이해해야 해요. 특히 ④ ⑤문단은 지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독해하고 문제를 푸세요.						

10~1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흡수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랜드에 해당한다.

②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③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

④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피트 왼편에 있는 랜드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Self 지문분석

★ 2단계 훈련 ★ 스스로 지문을 분석·요약해서 독해력을 키운다!

- ① ①문단 : CD 드라이브는 디스크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되거나 ()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하고, CD는 반사가 잘되는 ()와 산란되어 적게 반사되는 ()가 있음
- ② ②문단 : CD 드라이브는 CD를 회전시키는 (),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에 조사하고 반사된 광선을 검출하는 (), 광 픽업 장치를 이동시키는 ()로 구성되어 있는데, 광 픽업 장치에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으로 모으는 ()와 반사된 광선을 측정하는 ()로 구성되어 있음
- ③ ③문단 : 진동 발생 등의 원인으로 데이터 읽기에 오류가 발생하면 ()와 ()를 이용하여 편차를 보정하는데, 여기에는 ()를 이용하며, 광 검출기는 () 네 영역이 있으며, 빛이 많이 조사되면 출력값이 ()짐
- ④ ④문단 : 레이저 광선이 정확히 조사되면 광 검출기의 네 영역의 출력값이 ()하지만, 좌측으로 치우칠 경우,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지게 되고, 그 차이만큼 ()를 움직여 편차를 보정함
- ⑤ ⑤문단 : CD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광 검출기의 () 영역 출력값의 합이 () 영역 출력값의 합보다 상대적으로 커지며, 거리가 멀어지면 () 영역 출력값의 합이 () 영역 출력값의 합보다 커지게 되는데, 이때 ()를 이용하여 편차를 보정함
- ⑥ 전체주제 : []

| 지문 구조도 |

① CD 드라이브의 원리와 CD의 구조
↓
② CD 드라이브의 구조
↓
③ 데이터 읽기의 오류와 편차 보정
↓
④ 트래킹 조절 장치 제어를 통한 편차 보정
⑤ 초점 조절 장치 제어를 통한 편차 보정

10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②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③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②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겠군.
- ③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렌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⑤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1>과 <상태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영역	전	후	좌	우
상태1의 출력값	2	2	3	1
상태2의 출력값	5	5	3	3

-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1>보다 <상태2>가 작다.
- ② <상태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상태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 ③ <상태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 ④ <상태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 ⑤ <상태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상태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 **문제풀이법** 역시 내용 일치 문제이니, 먼저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고, 선택지의 키워드로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가며 푸세요.

- ② 포커싱 렌즈를 설명한 문단은?
- ③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는 말의 의미는?
- ④ 광 픽업 장치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 **문제풀이법** 지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추론하는 문제로, 내용 일치 문제처럼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여 해당 내용을 지문에서 확인한 다음 추론의 적절성을 판단해 가며 푸세요. 이때 판단의 근거가 두 부분에 걸쳐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해요.

- ② 그림도 적극적으로 참고해 보세요.
- ③ 렌즈와 피트의 차이점은?
- ④ 초점이 맞지 않을 때 출력값 비교는?
- ⑤ 광선 모양이 길쭉해지는 근본적 이유?

● **문제풀이법** 지문의 핵심 내용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했을 때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을 찾는 문제예요. 우선 지문을 근거로 <보기>의 상황을 분석해 본 다음,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찾고 지문과 <보기>를 근거로 적절성을 판단해 가며 푸세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지문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

- ② <보기>의 사례에는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④ 오른쪽? 왼쪽?
- ⑤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장치는?



Self 문제분석

★ 3단계 훈련 ★ 틀린, 헷갈린 문제는 정답의 근거를 찾아 다시 풀고, 문제분석을 한다!

정답/문제분석 241쪽

문제풀 날	[]월 []일	지문분석 / 훈련평가	[]월 []일	목표시간 체크	[○ / ×]	점수 체크	[] / 7점
정오답 체크	10 (○ / × / △)	11 (○ / × / △)	12 (○ / × / △)				
문제분석 훈련지침	1 틀린 문제는 ×, 감으로 맞힌 문제는 △ 표시하세요. 그리고 문제 오른쪽 '문제풀이법'을 보고 정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아가며 다시 푸세요. 이때는 자신의 생각과 문제풀이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 완벽하게 문제를 맞혔더라도 오답 선택지 중에 애매한 것이 없었는지 점검하세요. 2 그래도 또 틀렸다면 {문제분석식 해설}의 내용과 자신이 문제를 풀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세요. 맞힌 문제라도 문제 유형에 따른 단계별 문제풀이법, 정답의 근거 찾기, 오답 선택지 분석까지 모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문제분석을 해야만 국어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제제	사회	출처	2016 수능 공통	난이도	상	목표시간	7분
지문독해 방식	첫 문단의 사례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지문 독해의 핵심이에요. 밑줄 그은 ㉠은 바로 이것을 묻겠다는 거예요. 낯선 법률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각 용어 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세요.						

05~07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②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③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④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⑤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 P와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E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Self 지문분석

★ 2단계 훈련 ★ 스스로 지문을 분석·요약해서 독해력을 키운다

- ① ㉠문단 : 에우아틀로스(E)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을 배운 후, 처음으로 ()하면 수강료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맺었는데, 수업이 끝난 뒤에도 E가 ()을 하지 않아 P가 E를 소송함
- ② ㉡문단 : P와 E의 소송은 풀기 어려운 난제이지만 ()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P와 E가 맺은 계약의 성격은 수강료 지급이라는 ()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므로 ()에 해당하고, 그중에서도 ()이 있는 계약임
- ③ ㉢문단 :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한 ()가 제기되지 않아서 종결된다는가, ()에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고, 이에 대해 ()이 발생함
- ④ ㉣문단 : 확정 판결 이후 법률상의 새로운 ()이 생겼을 경우에, 다시 ()을 하는 것이 허용됨
- ⑤ ㉤문단 : P와 E의 분쟁에 대한 법률적 해결은, 우선 첫 소송에서는 ()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가 승소하고,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조건이 실현되었다는 ()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며,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가 승소하게 되며, ()는 다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분쟁이 해결됨
- ⑥ 전체주제 : []

| 지문 구조도 |

① P와 E의 분쟁 사례
↓
② 계약의 성격 : 정지 조건이 있는 계약
③ 확정 판결과 기판력
④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⑤ P와 E의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

0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 ②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 ③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 **문제풀이법** 내용 일치 문제이니 까, 먼저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고, 선택지의 키워드로 지문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가며 푸세요.

- ① '기한'의 의미?
 ② 장래의 사실에 의존?
 ③ '해제 조건'의 의미는?

06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첫 번째 소송에서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 **문제풀이법** ㉠에 대한 추론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로,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분석해 보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해 보세요.

- ② 첫 번째 소송의 결과는?
 ③ 소송을 통해 P가 얻고자 하는 바는?

0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검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우가 생겼다고 하자.

-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 ① (가)의 경우,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② (가)의 경우,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나)의 경우,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⑤ (나)의 경우, 이미 지나간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 **문제풀이법** 지문의 핵심 내용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했을 때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을 찾는 문제예요. 우선 지문을 근거로 <보기>의 상황을 분석해 본 다음,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찾고 지문과 <보기>를 근거로 적절성을 판단해 가며 푸세요. 너무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지문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마세요.

- ② 상식에 근거해서 풀어야 하는 안 돼요~
 ④ 자문에 나온 사례 중 (나)와 같은 것은?
 ⑤ 계약서 발견을 근거로 다시 소송할?



Self 문제분석

★ 3단계 훈련 ★ 틀린, 헷갈린 문제는 정답의 근거를 찾아 다시 풀고, 문제분석을 한다!

정답/문제분석 250쪽

문제풀이 날	[]월 []일	지문분석 / 훈련평가	[]월 []일	목표시간 체크	[○ / ×]	점수 체크	[] / 7점
정오답 체크	05 (○ / × / △)	06 (○ / × / △)	07 (○ / × / △)				
문제분석 훈련지침	1 틀린 문제는 ×, 감으로 맞힌 문제는 △ 표시하세요. 그리고 문제 오른쪽 '문제풀이법'을 보고 정답의 근거를 정확히 찾아가며 다시 푸세요. 이때는 자신의 생각과 문제풀이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 완벽하게 문제를 맞혔더라도 오답 선택지 중에 애매한 것이 없었는지 점검하세요. 2 그래도 또 틀렸다면 {문제분석식 해설}의 내용과 자신이 문제를 풀 과정을 비교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점검하세요. 맞힌 문제라도 문제 유형에 따른 단계별 문제풀이법, 정답의 근거 찾기, 오답 선택지 분석까지 모두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문제분석을 해야만 국어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오답 선택지 분석

- ① ㉠ 자연법 사상에서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 (○) ㉡의 관점은 '자연법 사상'이고 핵심 포인트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한다'예요. ㉢문단에서 자연법의 개념이 '정의롭고 도덕적인 법'이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의 반응은 적절해요.
- ② ㉢ 법률실증주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이라면 그 내용이 정의로워지는 따지지 않는다. (○) ㉣의 관점은 '법률실증주의'이고 핵심 포인트는 '내용이 정의로워지는 따지지 않는다'예요. ㉤문단의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라고 설명하였으므로 ㉢의 반응은 적절해요.
- ③ ㉤ 현실적으로 자연법을 뚜렷이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 법률실증주의를 따르면 실정법만이 법이 되므로,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 (○) ㉣의 관점은 '법률실증주의'이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 법인지 확정하는 일이 간편하다'예요. ㉤문단의 '법률실증주의는 국가의 입법 기관에서 제정하여 현실적으로 효력을 갖는 법률인 실정법만이 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 다'를 통해 볼 때 ㉣의 반응은 적절해요.
- ④ ㉣ 법률실증주의에 따르면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의 관점은 '법률실증주의'이고 핵심 포인트는 '심각하게 부당한 내용의 법률조차도 입법의 형식만 거쳤다면 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에요. ㉤문단의 '입법자가 합법적인 절차로 제정한 법률은 그 내용이 어떻든 절대적인 법이 되며'를 통해서 볼 때 ㉣의 반응은 적절해요.

16- C 과학 / 08~09

08 ④ 09 ⑤



Self 지문분석

| 정답 | ① 각운동량 보존 법칙, 돌림힘 ② 질량 요소, 각운동량, 각속도, 회전 관성, 각속도, 회전 관성 ③ 질량 요소, 밑줄표 ④ 가까워, 줄어, 커, 회전 관성, 각속도 ⑤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개념과 적용 사례

● 실전적 지문독해

㉠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각운동량은 / 질량이 m 인 작은 알갱이가 / 회전축으로부터 r 만큼 떨어져 / 속도 v 로 운동하고 있을 때 / mvr 로 표현된다. 그런데 회전하는 물체에 회전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거나 /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

| 내용독해 | ㉠문단의 중심 내용은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개념'이에요. 먼저 각운동이 회전 운동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제자리에서 빙글리 돌린다면, 공은 회전 운동, 즉 각운동을 할 거예요. 공을 그냥 둔다면 점점 느려지다가 멈추겠죠? 이것은 공이 회전하면서 땅과 마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찰이 없으면 계속 돌겠죠? 이렇게 계속 도는 것을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즉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각운동량은 회전 운동량을 의미하는데, mvr 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공의 회전 운동량(각운동량)을 줄여 속도가 느려지게 하는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나, 반대로 손으로 공을 회전 방향으로 쳐서 돌리는 힘, 즉 공의 각운동량을 늘려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해요.

| 구조독해 | ㉠문단은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개념 - 각운동량의 개념 - 돌림힘의 개념'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각운동량 보존 법칙', '돌림힘'의 개념을 정의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각운동량'과 '돌림힘'은 모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용어이므로, ㉠문단의 중심 화제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 그러면 팽이와 같은 물체의 각운동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한다. 이 질량 요소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팽이 전체의 각운동량에 해당한다. 회전 운동에서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 × (회전 관성)으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질량이 직선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듯이, /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즉, 회전체의 회전 관성이 클수록 그것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 내용독해 | ㉡문단의 중심 내용은 '각운동량의 개념과 표현 방법'이에요.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 × (회전 관성)으로 표현된다는 점과 물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알갱이 하나하나) 각각의 각운동량의 총합이 물체의 각운동량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질량 요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데,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 하나하나'로,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딱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원자'나 '분자' 정도로 이해해도 무방해요. 중요한 것은 물체를 이루는 각 부분은 질량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편, 각속도는 '초에 몇 바퀴를 돈다'처럼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을 의미해요. 회전 관성은 쉽게 말하면 '계속 돌려고 하는 힘'인데,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뜻인데 다른 느낌이지요? 회전 관성이 클수록 각속도, 즉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겠군요.

| 구조독해 | ㉡문단은 '물체의 각운동량의 개념 - 물체의 각운동량 표현 방법 - 각속도의 개념 - 회전 관성의 개념'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첫 문장에서 질문을 던지고, 네 번째 문장에서 답을 하는 문답의 서술 방식과 팽이의 예를 든 예시의 설명 방식, 각속도와 회전 관성의 개념을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문단은 ㉠문단에서 제시한 개념 중에서 '각운동량'이라는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하되, 그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요.

㉢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밑줄표 커진다. 그러므로 질량이 같은 두 팽이가 있을 때 훌쭉하고 키가 큰 팽이보다 넓적하고 키가 작은 팽이가 회전 관성이 크다.

| 내용독해 | ㉢문단의 중심 내용은 '질량 요소와 회전 관성의 관계'예요. 앞 문단에서 제시한 회전 관성의 개념을 이번에는 좀 다르게 '질량 요소들(알갱이 하나하나)의 회전 관성의 합'으로 제시했어요. 질량 요소들은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나 회전축에서의 거리가 0.1mm라도 차이가 나겠죠? 그 거리의 차이 때문에 각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밑줄표 커지면 회전 관성은 커지는군요. 그래서 예를 든 팽이 중 훌쭉한 팽이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회전 관성이 작을 것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회전 속도가 빨리 줄어들 거예요. 반대로 넓적한 팽이는 회전 관성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더 오래 돌 수 있는 거죠. 회전 속도가 천천히 줄어드니까요.

| 구조독해 | ㉢문단은 '회전 관성의 개념 - 질량 요소와 회전 관성의 관계'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특이하게도 인과 관계에서 결론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접속어인 '그러므로'를 사용했지만, 앞 문장의 예를 들고 있군요. ㉢문단은 ㉡문단 각운동량 표시 방법에서 '회전 관성'에 주목하여,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요.

㉣ 각운동량 보존의 원리는 스포츠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 공중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 피겨 선수가 공중에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 상태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피겨 선수의 회전 관성은 /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다. 따라서 팔을 몸에 붙이면 / 팔을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 가까워져서 / 팔을 뻗을 때보다 / 몸 전체의 회전 관성이 줄어들게 된다. 점프 이후에 / 공중에서 각운동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 팔을 붙였을 때가 / 뻗을 때보다 각속도가 커지는 것이다. 반대로 착지 직전에는 / 각속도를 줄여 착지 실수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 양팔을 한껏 펼쳐 / 회전 관성을 크게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 내용독해 | ㉣문단의 중심 내용은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보여 주는 사례 : 피겨 선수'예요. ㉣문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각운동량 = (각속도) × (회전 관성)'이라는 공식이고, 이때 각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 '각운동량'이 고정

되기 때문에 '각속도'와 '회전 관성'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피겨 선수가 팔을 몸에 붙이면 회전 관성이 작아지므로 각속도가 증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팔을 펼치면 회전 관성이 커져서 각속도가 감소하는 메커니즘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피겨 선수의 팔을 붙이거나 펼치는 것은 팔을 질량 요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해요. 팔도 몸을 이루는 질량 요소이므로, 팔을 펼치고 회전하는 것과 팔을 붙이고 회전하는 것은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 회전 관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 구조독해 ④문단은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사례 제시-피겨 선수의 공중 회전 시 작용하는 각속도와 회전 관성의 관계-착지 시 작용하는 각속도와 회전 관성의 관계'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④문단 전체가 ①~③문단에서 설명한 개념이 적용된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서로 반대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문의 흐름을 정리하면, ①문단에서 중심 화제인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개념을 설명한 다음, ②문단에서는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각운동량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③문단에서는 질량 요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회전 관성을 상세하게 설명한 뒤, ①~③문단의 개념이 적용된 사례를 ④문단에서 제시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 문제분석식 해설

08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에 제시된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내용 일치 문제와 비슷하네, 내용 일치 문제보다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해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분석해 보고, 2단계 : 해당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문단을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한 뒤, 3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처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고과정을 거쳐야 해요. 특히 2단계에서 지문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때에는 꼭 한 부분만 해당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판단의 근거가 두 개의 문단에 걸쳐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④ 크기와 질량이 동일할, /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 자전할 때 회전 관성은 쇠공이 더 크다. (○)

1단계 : 이 선택지는 '회전 관성'을 비교하는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회전 관성 : 속이 빈 쇠공 >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이에요. 2단계 : 회전 관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③문단의 '회전체의 회전 관성은 회전체를 구성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과 같은데,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 : 지문에서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이라고 했고,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가 멀수록 회전 관성이 더 커진다'는 원리가 판단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우선 '속이 빈 쇠공'과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의 질량 요소의 분포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선 '속이 빈 쇠공'의 경우, 질량 요소들이 모두 회전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집중되어 있어요. 공의 표면에만 질량 요소가 분포되어 있으니까요. 이에 비해 '속이 찬 플라스틱 공'은 상대적으로 질량 요소가 플라스틱 공 내부에 퍼져 있어요.

두 공의 전체 크기와 질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쇠공의 경우 표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은 플라스틱 공의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의 합보다 크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쇠공과 플라스틱 공의 질량 요소가 10개이고, 두 공 모두 표면에 있는 질량 요소 하나의 회전 관성이 10이라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플라스틱 공의 경우 회전축에서 표면까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경우 쇠공의 질량 요소는 모두 표면에 있으므로, 회전 관성의 합은 100이 될 거예요. 이에 비해 플라스틱공의 경우는 회전축에서부터 표면까지 질량 요소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질량 요소의 회전 관성은 $1+2+3+\dots+9+10=55$ 가 될 거예요. 따라서 쇠공의 회전 관성이 플라스틱 공의 회전 관성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④가 적절한 내용으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 함정_선택지분석

③ (선택률 41%) 지면과의 마찰은 /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 팽이의 각운동량을 줄어든다.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 부분에 대해 지문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지면과 마찰이 일어나면 팽이 속도가 줄어든다, 팽이의 각운동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③은 적절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팽이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과 '팽이의 회전 관성이 작아지는 것'을 같은 것으로 판단해 버린 함정에 걸려 든 거죠. 회전 관성은 회전하는 속도가 아니라 회전하는 힘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힘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따라서 선택지의 중요한 개념이나 용어는 지문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선택지 내에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선택지의 주어는 '지면과의 마찰'이고 구조는 '~ 만들어(이유) / ~ 줄어든다(결과)'이며, 핵심 포인트는 '회전하는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들어'라는 이유의 적절성이에요. '지면과의 마찰'과 관련된 내용으로 ①문단의 '회전하는 물체에 ~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이 변화하여 회전 속도는 빨라지거나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를 찾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선택지의 주어인 '지면과의 마찰'은 '돌림힘'에 해당하며, 회전하는 팽이의 각운동량이 줄어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돌림힘'인 지면과의 마찰이 팽이의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문의 어떤 내용에서도 '돌림힘'과 '회전 관성'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은 없어요. 따라서 ③은 전혀 관련이 없는 두 개념을 인과 관계로 연결해 놓은 문장에 불과하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⑤ (선택률 13%) 회전하는 하나의 시겟바를 위의 두 점 중 /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이 멀리 있는 점보다 / 각속도가 작다.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시겟바를 이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 시겟바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시겟바들이 시침이고, 멀리 있는 시겟바들이 분침인데, 가까이 있는 시침이 멀리 있는 분침보다 빨리 돌잖아? 그러니까 시침의 각속도가 작은 거야. ⑤는 적절해!'라고 생각한 거죠. 선택지에는 분명히 '하나의 시겟바'라고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될까요? 그건 이 선택지의 내용과 관련된 지문도 없거니와, 지문에 대한 이해가 자신이 없어서 맨봉에 스스로 빠져 당황했기 때문이에요. 시험칠 때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는 한편, 문제를 풀 때 차분하게 선택지를 분석하고 지문과 대조하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계속한다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선택지는 비교의 구조로, 비교 대상은 '회전하는 하나의 시겟바를 위의 두 점'이고 핵심 포인트는 '각속도 :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 < 멀리 있는 점'이에요. 선택지의 비교 대상을 확인해 보면 '하나의 시겟바를 위의 두 점' 중에서 '회전축에 가까이 있는 점'과 '회전축에서 멀리 있는 점'이고, 비교의 기준은 '각속도'예요. ②문단에서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점은 모두 하나의 시겟바를 위에 있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 즉 각속도가 동일해요. 회전축에서 떨어진 거리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아요.

■ 오답_선택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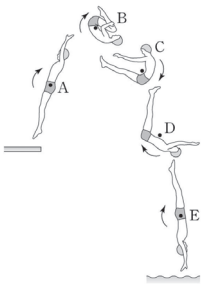
①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 (×) 이 선택지의 주어는 '정지되어 있는 물체'이고 핵심 포인트는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시키기 쉽다'예요. 일단 ②문단에서 회전 관성의 개념이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라는 것부터 확인해 볼까요?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주어이고, 마치 정지된 물체의 회전 관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어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는 회전 관성이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회전 관성의 개념과 모순되는 내용이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아요.

② 회전하는 팽이는 /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 (×) 이 선택지의 주어는 '회전하는 팽이'이고 핵심 포인트는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 있다'예요. ①문단의 '회전하는 물체에 ~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작용하게 되면, ~ 회전 속도는 ~ 느려지게 된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

체의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한다'를 바탕으로 볼 때 회전하는 팽이의 경우 마찰이라는 돌림힘을 받게 되고, 이 마찰 때문에 회전 속도가 줄어 결국은 회전을 멈추게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찰' 역시 외부에서 가해지는 '돌림힘'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아요.

09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의 내용을 <보기>의 사례에 적용했을 때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예요. 이때 <보기>에는 지문의 중심 내용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2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한 뒤, 3단계 : 선택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세 단계의 사고과정을 거쳐야 해요.

1단계 :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를 A~E를 분석해 봅시다.



다이빙 선수가 발판에서 점프하여 공중회전하며 A~E 단계를 거쳐 1.5바퀴 회전하여 입수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은 점은 회전 운동의 회전축을 나타내며 회전 운동은 화살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단, 다이빙 선수가 공중에 머무는 동안은 외부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보기> A~E의 다이빙 단계에서의 차이점은 다이빙 선수의 자세예요. 그런데 1.5바퀴 회전을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될 것이고(1문단), 각 단계에서 회전축과 질량 요소들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므로(2, 3문단), 회전 관성과 각속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4문단). 따라서 <보기>의 각 단계별로 '회전 관성'과 '각속도'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A	B	C	D	E
중심축과 질량 요소들 사이의 거리	가장 멀	가장 가까움	B보다 멀고, D보다 가까움	C보다 멀고, E보다 가까움	가장 멀
회전 관성	가장 큼	가장 작음	B보다 크고, D보다 작음	C보다 크고, E보다 작음	가장 큼
각속도	가장 느림	가장 빠름	B보다 느리고, D보다 빠름	C보다 느리고, E보다 빠름	가장 느림

정리하자면, A와 E는 몸을 편 상태로 회전 관성이 가장 크고 각속도가 가장 느린 반면, B는 몸을 가장 많이 움츠린 상태로 회전 관성이 가장 작고 각속도가 가장 빨라요.

이를 바탕으로 2~3단계를 거쳐 풀면, ⑤가 <보기>의 '적절함' 이해로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⑤ B 단계부터 같은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하여 입수한다면 / 다이빙 선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겠군. (○)

2단계 : 이 선택지의 구조는 '~ 입수한다면(가정) / ~ 회전하겠군(결과)'으로, 핵심 포인트는 'B 단계부터 같은 자세(가정) →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결과)'의 적절성이예요. 3단계 : 1단계 분석에서 보았듯이, B 단계의 각속도가 가장 빠르고 회전 관성이 가장 느려요. 그런데 4문단의 '피겨 선수에게 공중 회전수는 중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중 회전을 하는 동안 각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를 바탕으로 각속도가 커지면 회전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를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여 생각해 보면, 이 상태로 그대로 입수를 한다면 B 상태가 각속도가 크므로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⑤의 이해는 적절해요.

함정_선택지분석

① (선택률 11%) A보다 B에서 다이빙 선수의 각운동량이 더 크겠군. (×) ● 이 선택지

를 고른 학생들은 선택지의 '각운동량'의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B에서 가장 많이 돌겠네? 그럼 각운동량이 제일 크잖아! ①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러한 생각의 문제점은 '각운동량'과 '각속도' 또는 '회전수'를 모두 같은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 지문의 핵심 화제는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돌림힘이 없으면 '각운동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지문의 핵심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그림만 보고 판단한다면 문제가 과 놓은 함정에 이렇게 빠져 버리는 것이예요.

선택지의 구조는 비교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각운동량 : A < B'예요. 1문단에서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는 외부로부터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 운동을 유지하는데, 이를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각운동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각운동량은 동일해요.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아요.

오답_선택지분석

② B보다 D에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들의 합은 더 작겠군. (×) ● 선택지의 구조는 비교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질량 요소들의 합 : B > D'예요. 여기서 '질량 요소의 합'이 비교의 대상이 되는데, 질량 요소란 1문단에서는 '질량이 인 작은 알갱이', 2문단에서는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들로 팽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이 알갱이 하나하나를 질량 요소라고 했어요. 정리하자면 질량 요소는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는 아주 작은 균일한 알갱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질량 요소의 합은 그 물체의 전체 질량'이죠. B에서 D의 상태로 다이빙 선수의 자세가 변한다고 해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아요.

③ A~E의 다섯 단계 중 B 단계에서 다이빙 선수는 가장 작은 각속도를 갖겠군. (×)

● 선택지는 비교의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B 단계에서 가장 작은 각속도'예요. 1단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 단계에서의 다이빙 선수의 각속도는 가장 크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아요.

④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다이빙 선수의 팔과 다리가 펼쳐지면서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 (×) ●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회전 관성이 작아지겠군'이에요. 1단계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에서 E로 진행함에 따라 회전 관성은 점점 커지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아요.

16-10 기술 / 10~12

10 ③ 11 ④ 12 ①

Self 지문분석

| 정답 | ① GPS, 기지국, 위치 추정 범위 ② 중첩되는, 위치 추정 범위 ③ 전파 세기, 반비례, 대기의 습도 ④ 비율, 세기 ⑤ 동일, 선 ⑥ 점, 주변 건물 배치 ⑦ 스마트폰 위치 추정 방법의 종류

● 실전적 지문독해

① 스마트폰에서 현재 위치는 GPS를 주로 이용하여 찾아낸다. 그러나 실내와 같이 GPS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인접 기지국을 활용하여 알아낸다. 어떤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의 신호가 수신되면, / 그 스마트폰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고 / 수신 가능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형 지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 이 영역을 위치 추정 범위라 한다. 한 기지국의 수신 가능 거리는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른다.

| 내용독해 | 1문단의 중심 내용은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과 위치 추정 범위의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상태에서 스마트폰의 위치는 GPS를 이용하지만, GPS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인접 기지국을 활용하여 위치 추정을 하는군요. 위치 추정 범위는 휴대전화 신호를 중계하는 중계소 역할을 하는 기지국의 수신 가능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고'에 유의해야 해요. 오로지 A와 B에 작용하는 힘만 존재하므로, A와 B에 가해 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에는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아요. ④문단의 '돌고 있는 팽이에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를 바탕으로 볼 때, 원판 역시 계속해서 돌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또한 ②문단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를 통해 볼 때, 돌림힘인 A와 B를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②의 이해는 적절해요.

③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 ⚡ 선택지의 가정은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하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회전 속도는 증가'예요. 이미 현재 상태에서 알짜 돌림힘은 B의 돌림힘과 A의 돌림힘의 차이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A의 돌림힘을 제거하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되는 것, 즉 B의 돌림힘이 알짜 돌림힘이 되는 것이예요. 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판의 회전 방향과 일치하므로, 이때 알짜 돌림힘은 양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회전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원판의 회전 속도 역시 증가하게 될 거예요. ⑥문단, 따라서 ③의 이해는 적절해요.

19-① 기술 / 10~12

10 ④ 11 ④ 12 ⑤



Self 지문분석

1 정답 1 반사, 산란, 렌즈, 피트 2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 포커싱 렌즈, 광 검출기 3 트래킹 조절 장치, 초점 조절 장치, 광 검출기, 전후, 좌, 우, 커 4 동일, 커, 트래킹 조절 장치 5 전후, 좌우, 좌우, 전후, 초점 조절 장치 6 CD 드라이브의 편차 보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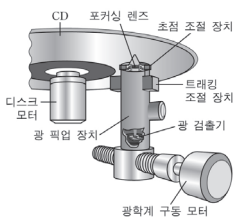
● 실전적 지문독해

1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CD의 기록면 중 광선이 흡여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렌즈 /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 트랙을 따라 일렬로 렌즈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다.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도 렌즈에 해당한다.

내용독해 1 문단의 중심 내용은 'CD 드라이브의 원리와 CD의 구조'예요. 흔히 CD의 뒷면이라고 부르는 반짝이는 부분이 디스크의 표면이에요. CD 드라이브에 넣으면 레이저 광선을 CD에 비추고, 그 빛이 반사되는지 산란되는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읽는 것이 CD 드라이브의 원리예요. 그래서 반사가 되는 부분을 '렌즈'라고 하고, 산란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CD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 나가는 트랙이 있고, 이 트랙을 따라 렌즈와 피트가 번갈아 가며 배치되어 있어요.

구조독해 1 문단은 'CD 드라이브의 원리 - CD의 구조 : 렌즈와 피트 - 트랙과 렌즈와 피트의 배치'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첫 문장은 CD 드라이브의 정의라기보다는 원리를 설명한 것에 해당해요. 그리고 둘째 문장부터는 CD의 구조를 '분석'의 서술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10문단의 두 중심 화제인 'CD 드라이브'와 'CD' 중에서 어느 것이 중심 화제가 될지는 다음 문단을 계속 읽어 보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2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모터, 광 픽업 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다.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킨다.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 (광선의



경로 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 광 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 렌즈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낸다.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 트랙에 광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

내용독해 2 문단의 중심 내용은 'CD 드라이브의 구조'예요. 그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내용을 이해해야 해요. CD 드라이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광 픽업 장치에는 '포커싱 렌즈'와 '광 검출기'가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해요. 우선 디스크 모터는 CD를 회전시키는 장치예요. '광 픽업 장치'는 CD에 레이저 광선을 쏘고, 반사된 빛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광 픽업 장치'의 '광 검출기'는 CD에 반사된 빛을 받아들이는 장치로,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렌즈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 내는군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는 장치예요. 마지막으로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를 CD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직선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예요. 여기서 직선으로 이동시킨다는 점,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동시킨다는 점을 유의해서 기억해야 해요.

구조독해 2 문단은 'CD 드라이브의 구조 - 디스크 모터의 기능 - 광 픽업 장치의 기능 - 포커싱 렌즈와 광 검출기의 기능 - 광학계 구동 모터의 기능'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2문단은 전체적으로 '분석'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각 장치의 기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11문단은 'CD 드라이브'의 원리만 설명한 데 비해, 2문단에서는 CD 드라이브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문 전체의 중심 화제는 'CD 드라이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3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제어해 /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 편차 보정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된다.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전후 영역이, / 직각 방향으로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다.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다면 /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 피트와 렌즈를 구별한다.

내용독해 3 문단의 중심 내용은 '데이터 읽기의 오류와 편차 보정'이에요. 데이터 읽기의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진동이 생기는 거고, 이로 인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는 문제점이나 초점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는 장치가 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예요. 그리고 이렇게 편차를 보정할 때에는 '광 검출기'가 사용이 되는군요. 앞 문단에서 광 검출기가 반사된 광선을 측정하여 렌즈와 피트를 구별한다고 했죠? 그 기능이 마지막 문장에서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리고 광 검출기는 CD의 트랙 방향과 같은 전후 영역과 직각 방향의 좌우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어요. 광 검출기는 이렇게 전후, 좌우 네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영역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다면 그 영역의 출력값이 커지는 원리가 적용되어 있네요. 또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렌즈를 구별해요. 그러니까 진동이 생겨서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게 되는 문제 상황이 생기면 네 영역의 출력값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 다른 장치(트래킹 조절 장치와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서 편차를 보정하겠군요.

구조독해 3 문단은 '데이터 읽기의 오류 - 문제 해결 방법 - 광 검출기의 구조와 원리'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은 '문제 - 해결'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 광 검출기의 구조를 '분석'의 서술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3문단은 CD 드라이브의 구조를 설명한 2문단과 달리, 문제 상황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4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 광 검출기 네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 피트 왼쪽에 있는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한다.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내용독해 4 문단의 중심 내용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통한 편차 보정'이에요. 정상적인 상태 즉 레이저 광선이 초점이 맞은 상태일 경우에는 광 검출기의 전후, 좌우 네 영역의 출력값이 동일해요. 그러나 광선이 좌측으로 치우치면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의 출력값보다 커지는 거죠. 이럴 경우 트래킹 조절 장치를 사용해서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편차를 보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측으로 치우치면 우 영역의

출력값이 커지게 되고, 광 픽업 장치를 왼쪽으로 움직여 편차를 보정하는 거군요.

■ 구조독해 ④문단은 '정상 상황의 광 검출기 출력값-좌측으로 치우친 경우 광 검출기의 출력값-트래킹 조절 장치를 통한 편차 보정-우측으로 치우친 경우'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④문단은 정상 상황과 문제 상황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고, '인과'의 서술 방식도 사용되어 있어요. ③문단의 첫 문장에서 설명한 문제 상황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상황으로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난 경우'를, ④문단에서 상세화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 경우 편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문단에서는 '조점이 맞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지요?

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다.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반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 출력 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 초점이 맞도록 한다.

■ 내용독해 ⑤문단의 중심 내용은 '초점 조절 장치 제어를 통한 편차 보정'이에요. 광 검출기로 들어오는 광선은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지는 거예요. 우선 CD와 포커싱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초점이 맞지 않으면 전후 영역으로 길어져서,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보다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CD와 포커싱 렌즈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하여 편차를 보정하는 거고요. 반대로 거리가 멀어져 초점이 맞지 않으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져서,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보다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 구조독해 ⑤문단은 '초점의 상태에 따른 광선 모양의 변화-CD와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의 광 검출기 출력값-CD와 포커싱 렌즈 간의 거리가 먼 경우의 광 검출기 출력값-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한 편차 보정'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문단 첫머리에 접속어 '한편'을 사용하여 앞 문단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고, 역시 상반되는 상황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문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①문단에서는 CD드라이브의 원리와 CD의 구조를, ②문단에서는 CD드라이브의 구조를 각각 설명한 다음, ③문단에서는 편차를 보정해야 하는 두 가지 문제 상황과 이를 인식하는 데 이용되는 광 검출기의 구조를 설명한 후, ④문단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편차를 보정하는 경우를, ⑤문단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를 각각 설명하고 있어요.

● 문제분석식 해설

10 정답의 근거찾기 또 내용 일치 문제이므로 앞서 나온 대로 세 단계 과정으로 푸세요.

④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1단계 : 이 선택지의 주어는 '광학계 구동 모터'이고 핵심 포인트는 '광 픽업 장치가 CD를 따라 회전'이에요. 2단계 : '광학계 구동 모터'를 키워드로 ②문단의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다'를 찾을 수 있어요. 3단계 : 지문 내용을 통해 볼 때 광학계 구동 모터는 광 픽업 장치를 '직선'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④에서는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함정_선택지분석

② (선택률 15%) 포커싱 렌즈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지문 내용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포커싱 렌즈가 아니라 초점 조절 장치가 레이저 광선을 한 지점에 모아 주는 거야!' 또는 '⑤문단에서 포커싱 렌즈는 CD 기록면에 레이저 광선을 쏘는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전자의 경우는 지문을 오독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트랙이 CD 기록면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예요.

선택지의 주어는 '포커싱 렌즈'이고 핵심 포인트는 '레이저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아 준다'예요. '포커싱 렌즈'를 키워드로 ②문단의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를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볼 때 ②가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③ (선택률 16%) 광 검출기의 출력값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 자체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출력값 자체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을 통해 가능하죠. 그러니까 '출력값이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값은 제어하는 데 사용된다'의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선택지의 주어는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고 핵심 포인트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제어하는 데 사용'이에요. '트래킹 조절 장치'와 '출력값'을 키워드로 ④문단의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다.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래킹 조절 장치를 작동하여 ~ 편차를 보정한다'를 찾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볼 때 ③이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오답_선택지분석

① 초점 조절 장치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시킨다. (○) 이 선택지의 주어는 '초점 조절 장치'이고 핵심 포인트는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이동'이에요. '초점 조절 장치'와 '포커싱 렌즈'를 키워드로 ⑤문단의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를 찾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①이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⑤ 광 픽업 장치에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 있다. (○) 이 선택지의 주어는 '광 픽업 장치'이고 핵심 포인트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반사된 레이저 광선을 검출하는 부분'이에요. '광 픽업 장치'를 키워드로 ②문단의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 픽업 장치 안의 광 검출기가 받아들인다'를 찾을 수 있으므로, ⑤가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11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에 제시된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이므로, 1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을 먼저 분석해 보고, 2단계 : 해당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문단을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한 뒤, 3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처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고과정을 거쳐야 해요. 특히 2단계에서 지문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때에는 꼭 한 부분만 해당될 것이라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판단의 근거가 두 개의 문단에 걸쳐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 단계를 거쳐 풀면, ④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 이해임을 알 수 있어요.

④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보정하겠군. (×)

1단계 : 이 선택지의 조건은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이에요. 2단계 : ⑤문단의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해 ~ 초점이 맞도록 한다'를 통해 볼 때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차이를 이용하여 편차를 보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단계 : 그런데 ④에서는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를 이용한다고 했어요. 이는 지문의 내용과 모순되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④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아요.

함정_선택지분석

② (선택률 18%)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었군.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②문단의 그림이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으로만 생각하여 레이저 광선은 위에서 아래로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나, CD에 반사되어 되돌아 온 레이저 광선이 광 검출기에 조사될 때 위에서 아래쪽으로 조사되는 것만 생각하여 틀렸다고 본 거예요. 선택지의 주어는 '레이저 광선'이고 핵심 포인트는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예요. ②문단의 'CD 아래에 있는 광 픽업 장치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고'를 통해 볼 때, 광 픽업 장치에

서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은 광 픽업 장치가 CD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사되는 방향이 아래에서 위쪽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CD 드라이브의 구조는 [2]문단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②는 적절해요.

③ (선택률 24%)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났겠군.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랜드나 피트나 모두 같을 거야. 그러니까 틀렸어!'라고 생각했거나, [4]문단에 레이저 광선이 피트 부분에 맞으면 왼쪽 편 랜드까지 읽어서 더 많은 출력값이 나타난다고 했어. 그러니까 피트를 읽을 때 출력값의 합이 더 클거야!'라고 생각했어요. 두 가지 생각 모두 선택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선택지에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 상황에서 피트와 랜드를 각각 읽을 때의 출력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선택지의 주어는 '광 검출기에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이고, 핵심 포인트는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났겠군'이에요. 우선 [1]문단에서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라고 설명한 내용을 통해 볼 때, CD에 반사되었다가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랜드 부분이 피트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어요. 이를 [3]문단의 '광 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 이때 각 영역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통해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다'라는 내용과 종합해 보면, 랜드를 읽을 때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빛의 양이 많아지므로,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이 피트를 읽을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③은 적절해요.

⑤ (선택률 16%)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으로 인해 / 광 검출기에 조사된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정답의 근거를 찾을 때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 지는 것'에만 보고 [5]문단의 내용에만 주목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5]문단에서는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지는 원인을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를 근거로 ⑤가 틀렸다고 생각한 거죠.

선택지의 구조는 '~으로 인해(원인) / ~ 있겠군(결과)'의 구조이고 핵심 포인트는 원인인 'CD의 고속 회전에 의한 진동'과 결과인 '레이저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겠군' 사이의 적절성이에요. 우선 [3]문단의 'CD의 고속 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에서 문제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광선의 위치가 트랙에서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인데, 이 중에서 초점이 맞지 않게 되면, [5]문단의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광선의 모양이 길쭉해질 수 있게 돼요. 따라서 ⑤는 적절해요.

오답 선택지분석

①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 (○) 이 선택지의 주어는 'CD에 기록된 정보'이고 핵심 포인트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야 하겠군'이에요. CD 드라이브에서 CD에 기록된 정보를 읽는 장치는 광 픽업 장치인데, [2]문단의 '광 픽업 장치를 CD의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에서 광 픽업 장치는 CD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CD의 정보를 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①은 적절해요.

12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2단계 :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한 뒤, 3단계 : 선택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세 단계의 사고과정을 거쳐야 해요. 1단계 :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봅시다.

<보기>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1>과 <상태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이다.

영역	전	후	좌	우
상태1의 출력값	2	2	3	1
상태2의 출력값	5	5	3	3

우선 <상태1>의 경우 광 검출기의 네 영역의 출력값 중에서 '전후'의 값은 일치하지만, 좌 영역이 '3'이고 우 영역이 '1'보다 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4]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에 해당해요. 따라서 <상태1>은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정중앙에 맞지 않고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로 왼쪽 랜드에서 반사된 빛이 많아졌기 때문이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광 픽업 장치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해요. 다음으로 <상태2>의 경우 광 검출기의 네 영역의 출력값에서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10이고,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합이 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는 [5]문단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에 해당해요. 따라서 <상태2>는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아 전후 영역으로 광선이 길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경우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포커싱 렌즈를 멀리 이동시켜 편차를 보정해야 해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2~3단계를 거쳐 풀면, ⑤가 '적절한' 내용으로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⑤ <상태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 / <상태2>에서는 멀게 해야 한다. (○)

2단계 : 이 선택지는 대조의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상태1> :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만'과 '<상태2> : 멀게 해야 한다'의 적절성이에요. 3단계 : 선택지의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면의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은 '초점 조절 장치'라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 정답을 찾는 포인트예요. 1단계 분석에서 보았듯이, <상태1>은 '트래킹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편차를 보정해야 하므로 '초점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상태2>는 CD 기록면과 포커싱 렌즈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이 좌우 영역의 출력값의 합보다 커진 경우이기 때문에 '초점 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거리를 멀게 해야 해요. 따라서 ⑤는 적절해요.

함정 선택지분석

② (선택률 23%) <상태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지만, / <상태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다.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상태1>과 <상태2>가 각각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여 멘붕에 빠져 적었거나, 각각의 문제를 반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상태1>과 <상태2>의 문제점을 판단하지 못했다면, <보기>의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들은 항상 지문 내용이 그대로 <보기>의 사례에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야 해요. 한편 <상태1>과 <상태2>의 문제를 착각하여 반대로 이해했다면, <보기>의 사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선택지는 대조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상태1> :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과 '<상태2> : 구동될 필요가 없다'의 적절성이에요. 1단계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상태1>은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고, <상태2>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해요. 그런데 ②에서는 반대로 <상태1>에서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지문 내용과 모순되죠.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않아요.

④ (선택률 15%) <상태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 <상태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상태1>은 좌우로 치우친 것이고, <상태2>는 좌우로 치우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런 생각의 문제점은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예요.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는 ‘〈상태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예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된다면 우 영역의 출력값이 좌 영역의 출력값보다 커야 해요. 그런데 1단계 분석에서 보았듯이 〈상태1〉은 좌 영역의 출력값이 더 크죠. 그래서 〈상태1〉은 레이저 광선이 왼쪽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아요.

오답 선택지 분석

①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1〉보다 〈상태2〉가 작다. (×) 선택지는 비교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 : 〈상태1〉 > 〈상태2〉’예요. 여기서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네 영역의 출력값의 합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상태1〉의 출력값의 총합은 8인데, 〈상태2〉는 그 두 배인 16이죠. 출력값과 광선의 총량은 비례하므로,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1〉보다 〈상태2〉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아요.

③ 〈상태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2〉에서는 구동되어야 한다. (×) 선택지는 대조의 구조로, 핵심 포인트는 ‘〈상태1〉 :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상태2〉 : 구동되어야 한다’예요. 1단계 분석에서 보았듯이, 〈상태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되어야 하고, 〈상태2〉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③은 이를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아요.

19- B 예술 / 13-15

13 ④ 14 ④ 15 ①

Self 지문분석

정답 1 악기, 의미 2 정서론, 음형론, 성악, 정서 3 의미, 부어마이스터, 가락, 쉬, 끊어 4 마테존, 수사학, 구조, 음조 5 구성적, 형식적, 순수 기악, 한슬리크 6 음형론과 정서론을 바탕으로 한 기악의 발전 과정

실전적 지문독해

1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내용독해 1 문단의 중심 내용은 ‘기악의 발전과 과제’예요. 오직 악기 소리만으로 구성되는 음악인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되었지만, 바로크 시대에 큰 발전을 이루었군요. 하지만 당시 청중들은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했기 때문에 기악을 ‘공허한 울림’이라고 비난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악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거예요.

구조독해 1 문단은 ‘기악의 발전-당시 청중들의 비판-기악의 과제’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1문단의 중심 화제는 ‘기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기악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내용이 다음 문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2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정서론’과 ‘음형론’에서 찾으려 했다. 이 두 이론은 본래 성악 음악을 배경으로 태동하였으나 / 점차 기악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정서론에서는 웅변가가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듯 / 음악가도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곡에 하나의 정서만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연설에서 한 가지 논지가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내용독해 2 문단의 중심 내용은 ‘정서론과 의미 부여 방법’이에요.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들은 ‘정서론’과 ‘음형론’을 통해 기악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했는데, 두 이론

이 원래는 성악을 위한 것이었지만, 기악에도 적용된 것이군요. ‘정서론’은 기악곡 하나에 하나의 지배적인 정서를 담아 설득력을 높임으로써 청자들의 정서를 움직여야 한다는 이론이에요.

구조독해 2 문단은 ‘정서론과 음형론-정서론의 개념과 의미 부여 방법’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2문단의 첫 문장은 1문단 마지막 문장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정서론’과 ‘음형론’이라는 두 이론을 제시했는데, 2문단에서는 ‘정서론’만 다루었으므로, 3문단에서 ‘음형론’을 상세하게 설명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요. 한편, ‘정서론’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유추’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여 웅변(또는 연설)에 빗대어 동일한 원리가 ‘정서론’에도 적용됨을 바탕으로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3 한편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음형을 표현 수단으로 삼는데, /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 부어마이스터는 / 마치 웅변에서 (말의 고저나 완급, 장단)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 내듯 /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① 연주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내용독해 3 문단의 중심 내용은 ‘부어마이스터의 음형론과 의미 부여 방법’이에요. 음형론에서는 가사의 의미와 음악의 형태가 서로 연관되는군요. 음형론의 예는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과 바로크 초기 오페라이군요. 부어마이스터는 음형론의 음악 이론가로, 가사의 뜻에 맞추어 가락을 올리거나 낮추기도 하고, 한동안 쉬기도 하고, 음들을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법으로 기악에 의미를 부여했군요.

구조독해 3 문단은 ‘음형론의 개념과 예-부어마이스터의 음형론과 연주 방식’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문단 첫머리에 접속어 ‘한편’을 사용하여 2문단의 ‘정서론’과 다른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고, 부어마이스터의 음형론을 설명할 때, 웅변에 빗대어 ‘유추’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3문단은 2문단에 이어 기악에 의미를 부여하는 두 번째 방법인 음형론을 설명하되, 부어마이스터라는 음악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즉 2문단과 3문단은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4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 마테존 역시 수사학 이론을 끌어들이어 /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기존의 정서론을 음악 구조에까지 확장하며 / 당시의 음조(音調)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마테존에 따르면 다장조는 기쁨을,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을 유발한다.

내용독해 4 문단의 중심 내용은 ‘마테존의 음악 이론과 의미 부여 방법’이에요. 마테존은 문학 이론인 ‘수사학’을 음악에 접목하여 객관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음 언어를 설명하였고, 정서론을 확장하여 음조와 특정 정서를 연결하여 다장조는 ‘기쁨’이라는 정서를 라단조는 ‘경건하고 웅장함’이라는 정서와 연결함으로써 기악에 의미를 부여했어요.

구조독해 4 문단은 ‘수사학을 접목한 마테존의 이론-정서론을 확장한 마테존의 이론’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마테존의 음악 이론은 두 가지인데, 이를 ‘또한’이라는 접속어로 구분지어 서술하고 있어요. 마테존이 바로크 후반의 음악 이론가라는 점에서 4문단은 바로크 초반의 음악 이론가인 부어마이스터의 이론을 설명한 3문단과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그러나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한 데 있다.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 주제 가락의 착상과 치밀한 전개 방식 등에 집중하였다. 이는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도래가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한 세기 후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는 음악이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하기에 이른다.

내용독해 5 문단은 ‘마테존의 음악적 업적과 순수 기악 음악’이에요. 마테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구성적 측면, 즉 주제 가락의 착상과 전개 방식 등을 분석함으로써 순수 기악 음악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예요. 순수 기악 음악은 음악의 가락, 리듬, 화성과 같은 형식적 요소를 중시하는 음악이에요. 마테존의 구성적 측면에서의 논의는 이러한 순수 기악 음악이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슬리크라는 음악 미학자는 이러한 순수 기악 음악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음들의 순수한 결합 그 자체로 깊은 정신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주장하였어요.

구조독해 5 문단은 ‘마테존의 업적 : 음악을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구체적 사례 : 아리아 분석-마테존의 논의의 의미-한슬리크의 주장’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문

정을 거쳐야 해요. 이때 2단계와 3단계에서 각각 다시 읽은 문장의 의미가 일치하면 그 어휘 풀이가 적절한 것이고, 다르다면 어휘 풀이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야 해요.

④ ㉔ :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 (X)

1단계 : ④ '국한'은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함'의 의미이므로, ④의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씀'은 적절하지 않아요. ④의 의미를 가진 어휘는 '적용(適用)'이에요. 2단계 : 만일 어휘의 정확한 뜻을 몰랐다면 문맥을 이용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㉔ 국한한다면'을 다시 확인한 다음, 3단계 : 이 맥락에 ④의 풀이를 넣어서 다시 읽어 보세요.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㉔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쓴다면)이 되는데, 이럴 경우 2단계에서 읽었던 문장의 맥락과 달라지고, 의미도 엉뚱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아요.

함정_선택지분석

③ (선택률 13%) ㉓ :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 (O) ㉓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㉓의 맥락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끼어들었기 때문에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므로, '개입'의 의미가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한편 '개입'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이 맞아요. 이를 문맥에서 확인하면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㉓(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게) 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와 같이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③은 적절해요.

오답_선택지분석

① ㉑ :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O) ㉑ '기반'의 의미는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가 맞아요. 이를 문맥에서 확인해 보아도 '행위의 ㉑(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이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①은 적절해요.

② ㉒ :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 (O) ㉒ '거론'의 의미는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이 맞아요. 이를 문맥에서 확인해 보아도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윤이 ㉒(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된다'가 적절하므로 ②는 적절해요.

⑤ ㉕ :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 (O) ㉕ ' 폄하'의 의미는 '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이 맞아요. 이를 문맥에서 확인해 보아도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㉕(어떤 대상이 지닌 가치를 깎아내림)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가 적절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⑤는 적절해요.

20-㉑ 사하1 / 05-07

05 ① 06 ③ 07 ⑤

Self 지문분석

1 정답 1 변론술, 승소, 소송 2 법률가, 효과, 부관, 정치 조건 3 상소, 대법원, 기관력 4 사정, 소송 5 조건, E, P, 법률, P, E 6 기관력의 개념과 법률상의 분쟁 해결

실전적 지문독해

1 변론술을 가르치는 프로타고라스(P)에게 에우아틀로스(E)가 제안하였다. “제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 그때 수당료를 내겠습니다.” P는 이를 받아

들었다. 그런데 E는 모든 과정을 수강하고 나서도 소송을 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그러자 P가 E를 상대로 소송하였다.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당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내내는 계약에 따라 수당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당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당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내용독해 1 1문단의 중심 내용은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소송 사례'예요. 에우아틀로스(E)가 프로타고라스(P)에게 변론술 수업을 들을 때 '처음으로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수당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프로타고라스가 이를 받아들였죠. 그렇다면 이런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거라고 보아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E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당료를 받지 못하게 된 P가 소송을 한 거예요. 여기서 '소송'이란 법률 용어로, 권리나 의무 등의 법률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재판관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송에서 이기면 '승소', 지면 '패소'라고 해요. 승소와 패소 사이에 불쌍사나운 일이 벌어졌지만, 일단 우리는 주관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문을 독해해야 해요. 여기서 P와 E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P가 승소할(이길) 경우 (E가 패소할(질) 경우)	E가 승소할(이길) 경우 (P가 패소할(질) 경우)
P의 주장	판결(수당료를 지급하라는 재판에서 이겼으므로)에 따라 수당료를 받게 됨	계약(E가 처음으로 승소하면 수당료를 지급)에 따라 수당료를 받게 됨
E의 주장	계약(E가 승소하지 못했으므로)에 따라 수당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판결(E가 재판에서 이긴 것은 수당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의미하므로)에 따라 수당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2 구조독해 1 1문단은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계약 - 프로타고라스의 소송 제기 -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주장'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1문단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고, 인용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이처럼 1문단에서 사례만 제시했다면, 다음 문단에서는 이 사례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설명이 나오게 될 거예요.

2 지금까지도 이 사례는 풀기 어려운 논리 난제로 거론된다. 다만 법률가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 수당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치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3 내용독해 1 2문단의 중심 내용은 '계약의 성격 : 정치 조건'이에요. 1문단 사례에 대해 철학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풀기 어렵다고 보지만, 법률가들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군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부터는 법률가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법률가들은 이 사례에서 계약의 성격부터 따지는 거예요. 계약의 성격은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거죠. 이 계약의 경우 수당료 지급이라는 효과의 발생에 제한을 덧붙였기 때문에 '부관'에 해당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승소하면'이라는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였으므로, '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해요. 또한 '처음으로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발생하면 수당료 지급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제 조건'이 아니라 '정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4 구조독해 1 2문단은 1문단 사례 해결에 대한 법률가들의 관점 - 1문단 사례의 계약의 성격 - 부관의 개념 - 부관의 종류 : 기한과 조건 - 조건의 종류 : 정치 조건과 해제 조건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2문단에서 '부관'의 하위 개념들을 설명한 부분이 언뜻 보면 생동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두 번째 문장에서 설명한 계약의 성격이 '정치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세련된 구조예요. '정치 조건'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부관', '기한', '조건', '정치 조건', '해제 조건'의 개념들과 관계를 제시한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우선'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하여 법률가들이 어떻게 이 난제를 해결하는지 그 첫 번째 과정으로서 계약의 성격을 따지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군요. 그리고 셋째 문장부터는 '정의'와 '분류'의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편 2문단은 1문단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구조로 연결되어 있어요.

3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1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 2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

중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내용독해 | ③문단의 중심 내용은 '민사 소송에서의 기판력의 효과'예요. '기판력'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모순된 확정 판결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군요. 민사 소송에서는 '상소가 제기 되지 않아서 종결되는 경우'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고, 그 확정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 구조독해 | ③문단은 '민사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 - 기판력의 효과 - 기판력의 예시 - 기판력을 인정하는 이유'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접속어 '예를 들어'를 사용하여 기판력에 대한 예시를 보여 준다든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한편 ③문단은 ②문단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인 '기판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된 것이죠. 그런데 이는 여전히 ②문단에서 언급한 대로, 법률가들이 ①문단 사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해요.

[4]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 내용독해 | ④문단의 중심 내용은 '확정 판결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③문단에서는 확정 판결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④문단에서는 확정 판결이 났더라도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조건은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것'이에요. ③문단에서 예로 든 사례에서 '계약 기간 만료' 즉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이라는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확정 판결과 새로 제기하는 소송이 서로 다른 사안의 소송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전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 구조독해 | ④문단은 '확정 판결 이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 - 소송을 허용하는 이유 - 예시'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세 번째 문장에서부터는 ③문단에서 예로 들었던 사례를 다시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에요. ③문단에서는 기판력의 개념을 제시하여 확정 판결이 난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면, ④문단에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조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5] 이렇게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 ㉠과 E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따져 보자.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P가 다시 수강료에 관한 소송을 할 만한 사유가 없다.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 내용독해 | ⑤문단의 중심 내용은 'P와 E의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해결'이에요. 두 단계를 거치면 해결되는데, 1단계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E가 승소하는 거죠. 이유는 '처음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②문단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③문단), P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렇게 P가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E가 승소했으므로 계약상의 조건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인데, 이걸 곧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긴 경우에 해당해요(④문단). 이렇게 되면 결국 P가 승소하게 되는 거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E는 다시 소송을 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이 분쟁은 해결되는 거예요.

| 구조독해 | ⑤문단은 'P와 E 사이의 분쟁에 대한 법률적 해결의 첫 단계 - 두 번째 단계 - 분쟁의 해결'의 구조로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서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 사이에는

접속어 '그런데'로 연결되어 있고, 소송의 결과는 '따라서'라는 접속어로 연결하고 있어요. ⑤문단은 ①문단에서 제시한 'P와 E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②, ③, ④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문의 흐름을 정리해 보면, ①문단에서 P와 E 사이의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제시한 다음, ②문단에서 계약의 성격을 설명하고, ③문단에서는 확정 판결과 기판력의 개념을 설명하고, ④문단에서 기판력이 발생한 이후에 다시 소송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한 후, ⑤문단에서는 앞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①문단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 문제분석식 해설

05 정답의 근거찾기 내용 일치 문제이므로, 1단계 : 각 선택지를 분석하여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고, 2단계 :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정해서 지문의 해당 내용을 찾고, 3단계 : 선택지의 내용이 맞는지 지문과 대응시켜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야 하죠.

이러한 세 단계를 거쳐 풀면, ①이 지문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답이 뒀을 알 수 있어요.

①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다. (x)

1단계 : 이 선택지의 대상은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주어는 '승소'이며, 핵심 포인트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기한'이에요. 2단계 : '수강료 지급'을 키워드로 ②문단의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찾을 수 있고, '기한'을 키워드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를 찾을 수 있어요. 3단계 : 선택지의 대상인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는 P와 E가 맺은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한 계약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것은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므로, 이는 '기한'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해요. 따라서 ①은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함정_선택지분석

② (선택률 10%) 기한과 조건은 모두 /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점이 공통된다. (o)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②문단의 내용을 오독하여 '기한은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지만, 조건은 의존하지 않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진 이유는 지문 내용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이분법적 사고로 단순히 내용을 구분했기 때문이에요. 이 선택지를 골랐다면 선택지를 판단할 때 지문을 다시 확인하는 생각의 습관을 길러야 하는 동시에, 지문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생각의 훈련이 필요해요.

선택지의 대상은 '기한과 조건은 모두(공통점)'이고 핵심 포인트는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예요. '기한', '조건'을 키워드로 ②문단의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를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기한'과 '조건' 모두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다만 '기한'과 '조건'은 '확실히 발생할 사실이나,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이냐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②는 지문 내용과 일치해요.

③ (선택률 10%)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o)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해제 조건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이 함정에 빠지는 이유 역시 선택지를 판단할 때 지문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기억력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므로, 선택지를 판단할 때 지문에 근거하는 생각의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해요.

선택지는 '~ 덧붙이면(조건) / ~ 수 있다(판단)'의 구조로, 조건은 '계약에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이에요. '해제 조건'을 키워드로 [2]문단의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를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③은 지문 내용과 일치해요.

오답_선택지분석

④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 (○) ➡ 선택지는 '~ 않으면(조건) / ~ 생긴다(판단)'의 구조로, 조건은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 상소 기간이 다 지나가도록 상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그 판결에는 기판력이 생긴다'예요. '상소'와 '기판력'을 키워드로 [3]문단의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를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④는 지문 내용과 일치해요.

⑤ 기판력에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 ➡ 선택지의 전체 문장 구조는 '기판력에는 ~ 전제가 깔려 있다'인데, '법원이 ~ 내릴 수 없다는'이라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예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법원이 판결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후에 법원 스스로 그와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전제'의 적절성 여부예요. '모순된 판결'과 '기판력'을 키워드로 [3]문단의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를 찾을 수 있어요. 따라서 ⑤는 지문 내용과 일치해요.

06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에 제시된 구체적 정보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내용을 추론하는 유형의 문제예요. 내용 일치 문제와 비슷한데, 내용 일치 문제보다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해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분석해 보고, 2단계 : 해당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문단을 찾아 그 내용을 확인한 뒤, 3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처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고과정을 거쳐야 해요. 특히 2단계에서 지문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때에는 꼭 한 부분만 해당될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판단의 근거가 두 개의 문단에 걸쳐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 단계를 거쳐 풀면, ③이 '적절한' 추론으로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③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는 /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일 것이다. (○)

1단계 : 이 선택지의 주어는 '첫 번째 소송에서나 두 번째 소송에서나 P가 할 청구'이고 핵심 포인트는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이에요. 2단계 : 우선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요구할 사항은 [1]문단의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소송에서 P가 요구할 사항은 [5]문단의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어요. 3단계 : 우선 [1]문단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요구하는 사항은 '수강료 지급'이에요. 다음 [5]문단에서 P가 확정 판결 이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게 될 경우에는 P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송에서도 P가 청구하는 내용은 '수강료 지급'이 되는 거죠. 따라서 ③의 추론은 적절해요.

합정_선택지분석

② (선택률 10%)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에는 /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것이다. (×)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5]문단에서 제시한 분쟁 해결의 결과만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판결의 결과 P가 승소하므로 판결문에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택지의 주어는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이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이 선택지를 골랐다면 문제를 풀 때 성급하게 덤벼들지 말고, 차근차근 선택지의 주어-서술어 관계와 같은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여 문제를 푸는 생각의 훈련을 해야 해요.

선택지의 주어는 '첫 번째 소송의 판결문'이고 핵심 포인트는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5]문단의 '이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를 통해 볼 때, 첫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승소했으므로 판결문에는 'E는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실릴 것임을 추론할 수 있어요. 따라서 ②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아요.

오답_선택지분석

① 첫 번째 소송에서 /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 ➡ 선택지의 대상은 '첫 번째 소송'이고 핵심 포인트는 'P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E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이에요. [1]문단에서 첫 번째 소송에서 P와 E가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P는 주장하였다. "내가 승소하면 판결에 따라 수강료를 받게 되고, 내가 지면 자네는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야 하네." E도 맞섰다. "제가 승소하면 수강료를 내지 않게 되고 제가 지더라도 계약에 따라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를 통해 볼 때, P의 주장은 '수강료를 내라'이고, E의 주장은 '수강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①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 /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①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아요.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선택지의 대상은 '두 번째 소송'이고, '~이므로(근거) / ~ 것이다(추론)'의 구조이며, 근거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이고 핵심 포인트는 'P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5]문단에서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조건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를 통해 볼 때,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승소라는 조건을 달성한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④에서는 이를 반대로 서술했으므로 ④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아요.

⑤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 /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일 것이다. (×) ➡ 선택지의 대상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이고, '~이므로(근거) / ~ 것이다(추론)'의 구조로, 근거는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될 것이므로'이며 핵심 포인트는 '두 판결 가운데 하나는 무효'예요. 두 소송에서 P와 E 사이에 승패가 상반된 것은 맞지만, 두 판결 모두 유효한 것이지 둘 중 하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예요. [5]문단의 '법원이 E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 판결 확정 이후에 P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 ~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결국 P가 승소한다. ~ 이 분쟁은 두 차례의 판결을 거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를 통해 볼 때, 두 차례의 유효한 판결을 바탕으로 이 분쟁이 해결됨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⑤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아요.

07 정답의 근거찾기 지문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을 묻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1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보고, 2단계 : 각 선택지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한 뒤, 3단계 : 선택지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세 단계의 사고과정을 거쳐야 해요.

1단계 :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해 봅시다.

<보기>

갑은 을을 상대로 자신에게 빌려 간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하는데, 소송의 내용
계약서와 같은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 또는 (나)의 경
3문단의 사례와 같은 상황
우가 생겼다고 하자.

- (가)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패소하였다. 이 소송의 결과,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 [3문단]
판결은 확정되었다.
기판력이 발생함
- (나) 법원은 을이 금전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갚기로 한 날은 '기한'에 해당함. [2문단 및 4문단의 사례와 관련된]
2015년 11월 30일이라 인정하여, 아직 그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문단의 사례에서와 같은 판결]
갑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기한'이 지나면 갑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문단]

〈보기〉의 사례를 정리하자면, (가)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계약서를 발견하여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갑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어요. [3문단]. 이에 비해 (나)의 경우 계약상의 기한인 2015년 11월 30일이 지난 이후에 계약의 기한이 만료되었다는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갑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2~3단계를 거쳐 풀면, ⑤가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⑤ (나)의 경우, / 이미 지난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 /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 (×)

2단계 : 이 선택지의 대상은 '(나)'이고, '~ 발견되면(조건) / ~ 할 수 있다(판단)'의 구조예요. 조건은 '이미 지난 2015년 2월 15일이 갚기로 한 날임을 밝혀 주는 계약서가 발견되면'이고, 핵심 포인트는 '갑은 같은 해 11월 30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근거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예요. 3단계 : (나)의 경우 갑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런데 새로운 계약서가 발견되는 것은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요. [3문단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1단계 분석에서 보았듯이, (나)의 경우 갑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계약상의 기한인 2015년 11월 30일이 지난 이후에 '기한'의 만료라는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아요.

합정_선택지분석

② (선택률 10%) (가)의 경우, /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선택지를 판단할 때 자신의 상식에 근거하여 '나중에 증거를 발견하면 다시 소송할 수 있어. 그게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한 거예요. 국어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판단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기억력이나 상식에 근거에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선택지를 골랐다면 선택지를 판단할 때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훈련을 꾸준히 해서 잘못된 생각의 습관을 바꾸어야 해요.

선택지의 대상은 '(가)'이고, '~하더라도(조건) / ~ 허용되지 않는다(판단)'의 구조예요. 조건은 '갑은 빌려 준 금전에 대한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이며, 핵심 포인트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금전을 갚아 달라고 소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예요. (가)의 경우 패소한 이유가 계약서라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3문단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를 근거로 볼 때 갑이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②는 적절해요.

④ (선택률 14%) (나)의 경우, /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 /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 이 선택지를 고른 학생들은 '(나)에서 갑이 소송을 다시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함정에 빠진 이유는 같은 사안을 다시 소송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3문단의 내용]에만 근거한

채, (나)의 사례가 [4문단의 사례와 같은 것임을 간과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보기〉에서 제시되는 사례들은 항상 지문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원리는 같지만 지문의 사례를 살짝 바꾸어 놓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처럼 지문에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보기〉에 사례가 또 나온다면 〈보기〉의 사례와 지문의 사례가 일대일 대응이 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야 해요.

선택지의 대상은 '(나)'이고, 조건은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하더라도'이고, 핵심 포인트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예요. (나)의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아직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계약상의 기한인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계약이 만료되어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기는 거죠. [4문단의 '확정 판결 이후에 법률상의 새로운 사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근거로 하여 다시 소송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는 전과 다른 사안의 소송이라 하여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를 통해 볼 때, ④의 내용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답_선택지분석

① (가)의 경우, /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 (○) ➡ 선택지의 대상은 '(가)'이고 핵심 포인트는 '갑은 더 이상 상급 법원에 상소하여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지 않다'예요. (가)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요. [3문단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를 통해 볼 때, 갑은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①은 적절해요.

③ (나)의 경우, /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 ➡ 선택지의 대상은 '(나)'이고 핵심 포인트는 '을은 2015년 11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예요. 〈보기〉의 (나)에서 갑이 빌려간 금전을 갚아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고, 을은 승소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을이 승소한(갑이 패소한) 이유는 아직 계약상의 기한이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③은 적절해요.

20-㉠ 과학 / 08~09

08 ④ 09 ⑤



Self 지문분석

정답 | ① 중력, 부력, 항력, 질량, 중력 가속도, 부피, 무게, 반대 ② 항력, 반대, 비례, 마찰 항력, 압력 항력, 점성, 표면적, 단면적, 마찰 항력, 압력 항력 ③ 압력 항력, 마찰 항력 ④ 중력, 항력, 부력, 종단 속도, 평형 ⑤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세 가지 힘과 종단 속도

● 실전적 지문독해

① 어떤 물체가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 속에서 자유 낙하할 때 물체에는 중력, 부력, 항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물체의 질량에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 물체가 낙하하는 동안 일정하다. 부력은 어떤 물체에 의해서 배제된 부피만큼의 유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 항상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빗방울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빗방울의 부피에 해당하는 공기의 무게이다.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1,000분의 1 수준이므로, / 빗방울이 공기 중에서 떨어질 때 / 부력이 빗방울의 낙하 운동에 항을 주는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스티로폼 입자와 같이 밀도가 매우 작은 물체가 낙하